

영어와 한국어 Tough 구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박기성
(부산대학교)

Park, Ki-seong.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Functions of *Tough*-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1), 141-15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unctions of *tough*-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The main claim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argued that *tough*-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should not be viewed as a phenomenon of movement, but as involving the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Second, we have discussed the functions of *tough*-constructions in terms of two perspectives in information packaging theory. We have argued that both English and Korean *tough*-constructions function as the cohesive topicalization device. In addition the uses of *tough*- construc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conversion fromthetic judgment sentences to categorial judgement sentences in both languages. Third, it is claimed that the *tough*-constructions in both languages carry the semantic property of genericity, which tends to be associated with the requirement of homogeneity reflecting personalized experiences. To summarize, *tough*-constructions in both languages are used for some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and share many functional characteristics.

주제어(Key Words): *tough*-construction, English, Korean, information packaging theory, topicalization, thetic/categorial judgment, genericity, homogeneity requirements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을 그 의미 화용적 기능의 관점에서 그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Tough* 구문에 관한 연구는 각 개별 언어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그 구문에

* 이 논문은 200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필자는 여러 가지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한 이론적 접근이 까다로워 두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언어 tough 구문의 의미화용적 측면의 비교 연구를 통해 tough 구문 연구의 외연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영어에서 tough 구문 혹은 tough 이동(movement)이란 용어는 Postal(1968)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변형문법에서의 변형 규칙을 논의하기 위한 용어로서 사용되었으며, tough 구문은 그에 상응하는 비tough 구문으로부터의 변형에 의한 파생과정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difficult, easy, hard, simple이나 tough와 같은 형용사가 한 문장의 주술어로 나오는 경우를 언급하는데, 상위문의 주어 위치는 문장 내의 타동사의 내적 논항(internal argument)인 명사구에 의해 채워진다. 또한 하위문에는 (정상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이 공백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a. This problem is easy to solve.
- b. It is easy to solve this problem.

변형생성 문법에서는 (1a)는 통사적으로 (1b)에서 tough 변형에 의해 파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형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구문을 tough 이동 구문이라 칭한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영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tough 구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 a. 영어가 배우기(가) 어렵다.
- b.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어’ 격조사의 종류에 따라 tough 구문과 비tough 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tough 구문을 허용하는 서술어가 영어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서술어의 종류는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다(고광주 2002: 10 참조).

- (3) a. 행사를/가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b. 책을/이 만들기가 수월치 않았다.
- c. 물가를/가 따라잡기가 버겁다.
- d. 농사를/가 짓기가 고되어서 그렇지.

e. 회사를/가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3)의 밑줄 친 서술어 외에 ‘불편하다, 편하다, 좋다, 역겹다, 딱하다, 흉하다, 거북하다, 곤혹스럽다’ 등의 서술어가 사용되며, 주로 어렵고 쉬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든지, 혹은 심정적 판단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의 tough 구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구문을 독립된 구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tough 구문이라는 독립된 구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tough 구문이라고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채희락 1998 참조).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상응 구문이 영어의 tough 구문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편 영어와 한국어 외에도 많은 언어에서 tough 구문을 관찰할 수 있는데, 김종명(2004: 511)은 몇몇 언어의 tough 구문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4) tough 구문의 언어간 유사성과 차이점

	한국어	불어	영어	일본어
tough 형용사의 의미적 유사성	O	O	O	O
구문 대응관계	O	O	O	X
내포동사의 선택제약	O	O	O	O
동지시 제약	X	O	O'	X
보어의 형태	O	X	X	O
보어의 인칭제약	O	X	X	X'
한정제약	X	O	X	X
유사구문	O '	O	O	X

이 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영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은 동지시 제약, 보어의 형태, 보어의 인칭 제약을 제외하고는,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관점에서의 논의 외에 의미 화용적 기능의 관점에서의 두 언어의 tough 구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2장과 3장에서 이러한 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Tough 구문과 정보포장이론

본 장에서는 영어의 tough 구문이 정보포장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Lambrecht(1994)는 4가지의 각기 다른 정보포장 범주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첫 구분은 구정보와 신정보의 구분이며, 두 번째 구분은 확인가능성(identifiability)과 활성화(activation) 측면의 논의와 관련된다. 세 번째 구분은 화제(topic)와 초점(focus)에 관한 구분이며, 네 번째 구분은 단언적(thetic) 판단과 범주적(categorial) 판단의 구분과 관련된다. 본 논문에서는 Lambrecht가 주장한 정보포장 이론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측면에 관해서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즉 영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이 화제화를 통한 화제-평언 구조로 실현되며 평언은 초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두 언어의 tough 구문이 단언적 판단과 범주적 판단의 구분과도 관련되며, 두 언어의 tough 구문 사용이 단언적 판단에서 범주적 판단의 기능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1. Tough 구문과 화제화

본 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이 화제화를 통한 화제-평언의 의미화용적 원리를 구현한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Comrie(1981)에 따르면 화제-평언 구문은 많은 언어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며 화제와 주어의 구분에 관한 열띤 논쟁이 있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Li & Thompson(1976)은 언어유형적으로 화제 우세(topic-prominent) 언어와 주어 우세(subject-prominent) 언어의 구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화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정민(1992)은 한정 명사구로서 문두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숙성(familiarity)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Li & Thompson(1976)은 범언어적으로 화제가 갖는 일곱 가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화제를 문두에 위치하면서 친숙성이 있으며, “what the rest of the sentence is about(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의존하는 관계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B ring(1999)의 견해를 따라 담화 화제(discourse topic)의 개념보다는 문장 화제(sentence topic)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Takami(1996: 96)는 영어의 tough 구문을 화제-평언과 비슷한 구조로 인식하면서 tough 구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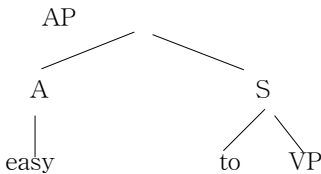
(5) Characterization Condition for the Tough Construction:

The tough construction is acceptable if the subject is characterized by the rest of the sentence. Otherwise, it is found unacceptable, or marginal at best.

Takami의 tough구문에 대한 특성화 조건은 분명한 화제-평언 구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화제-평언의 구조로 환언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tough구문에서의 화제화의 목적은 적절한 어휘적 화제(topic)를 제공하는 기제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Hietaranta(1984: 22)는 tough구문이 화제화 구문이라는 것을 더욱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Hietaranta는 “Thus one of the functions of the TC in English is to act as a mechanism providing suitable lexical topics”라고 언급하면서, 영어의 tough구문이 화제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한 논증 없이 다루고 있어, 이 주장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제화에 대한 첫 번째 논거는 Nanni(1980)의 주장과 관련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Nanni는 영어의 easy to solve와 같은 연쇄는 비통사적 혹은 비변형적 파생 즉 어휘적 파생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easy와 같은 형용사는 부정사 보어를 갖는 것으로 하위범주화 될 수 있고 그 통사적 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여기서는 tough 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

(6) easy to solve의 통사구조



이러한 Nanni의 주장은 tough 구문이 이동 변형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어휘적 과정이라는 것이며, 이 주장은 또한 tough 구문이 비tough 구문과 구분되는 화제와 평언의 구조의 반영 기제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Nanni의 이러한 주장이외에도, HPSG와 같은 비파생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론에서는 (1)의 두 문장 사이의 통사 의미적 관계는 어휘적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같은 형용사 easy가 두 가지 다른 구조를 갖는 구문에 관련되지만,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의 tough-구문이 화제와 평언의 화제화 구문이라는 두 번째 논거는 화제 지속성(topic continuity)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예문은 Van Oosten 1984 참조).

- (7) a. Harry made sure his sonata would be easy
to play on my violin ...
i. ... by keeping it slow.
ii. *... by tuning it.
- b. Harry made sure my violin would be easy
to play his sonata on ...
i. *... by keeping it slow.
ii. ... by tuning it.

Van Oosten(1984)은 (7) 예문의 차이를 책임성 해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화제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예 (7a)에서 (ii)가 불가능한 이유는 his sonata가 화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by로 인도되는 절 속의 대명사 it의 화제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만이 가능한 문맥이 된다. 또한 예 (7b)에서도 역시 화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i)만이 문맥상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예들을 고려해 볼 때, tough 구문의 사용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화제-평언의 구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tough-구문이 화제화 구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논거는 숙어와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8) a. Careful attention was very hard to pay
to that boring lecture.
b. *Attention is difficult to pay to boring lectures.
(Chun 1995: 99)

(8a)와 (8b) 두 문장은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8a)의 명사구 careful

attention은 (8b)의 명사구 attention에 비해 보다 한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성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내며, 이러한 화제성의 특성으로 인해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¹⁾

영어의 tough 구문이 화제화와 관련된다는 또 다른 주장은 tough 구문과 비tough 구문 사이의 양화사의 영역 변화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9) a. It will be easy for me to find some girls.
- b. Some girls will be easy for me to find.
- c. It would be difficult for Jim to talk to few girls.
- d. Few girls would be difficult for Jim to talk to.

Postal (1974: 224)

예문 (9b)와 (9d)의 양화사의 경우 넓은 영역(wide scope) 해석만을 갖지만, (9a)와 (9c)의 양화사는 넓은 영역과 좁은 영역 해석 둘 다를 허용한다. Postal(1974)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영역 해석의 차이는 tough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상승(raising) 구조와 관련되는 일반적 현상이다. 여기에서 tough 구문의 상승 양화사가 넓은 해석만을 갖는 이유는 some(혹은 few) girls란 명사구가 as for some(혹은 few) girls와 같은 화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증거는 tough 구문이 화제-평언과 관련된 화제화 구문이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9b)와 (9d)의 ‘some girls’와 ‘few girls’는 이후의 평언 요소에 대한 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해석을 갖는 양화사의 넓은 해석만을 갖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²⁾

이제 한국어의 tough 구문과 화제-평언 구조와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먼저 한국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하위절에 목적어 공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0) a. 그 책이 [서론을 읽기]-가/에 어렵다.
- b. 이 책이 [내용을 이해하기]-가/에 쉽다.

채희락(1998: 50)

1)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8)과 같은 화제화된 속어 구문에서의 용인가능성 판단은 학자들 간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논거로서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

2)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한국어 tough 구문의 경우, 이러한 영역 차이를 인식하기가 보다 힘들며 이러한 영역의 차이를 화제화의 증거로 사용하기 힘들어 보인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절의 목적어 자리가 공백이 아닌 다른 명사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영어에서의 목적어 주어 상승과 같은 논항구조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한국어 현상을 볼 때 한국어 tough 구문이 논항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통사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화제화를 위해 명사구의 일부가 화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논항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 금요일이 우리가 공부하기 쉬울 것이다’ 라는 예에서 ‘이번 금요일’ 이라는 표현은 내포절의 부사 요소이며, 따라서 일반 형용사 구문에서는 조사 ‘에’ 가 붙어 부사 요소임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요소가 마치 주어처럼 ‘이’ 로 표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영어의 tough 구문과는 달리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논항구조의 변화가 꼭 수반될 필요가 없으며 이는 화제화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tough 구문이 화제화 구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부사와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 (11) a. *[영어를 무척 배우]기가 어렵다.
 b. [영어가] [무척 [배우기가] 어렵]다.

부사 ‘무척’ 은 형용사 ‘어렵다’ 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11b)의 tough 구문의 경우 ‘배우기가 어렵다’ 라는 전체 성분을 수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1a)의 비tough 구문에서는 구조상 그러한 수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의 통사적 수식 영역에 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할 때, tough 구문이 논항 변화와 이동을 수반하는 통사적 과정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어휘적 과정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휘적 과정을 통해서 화제-평언의 구조로 해석 가능하다.

한국어의 tough 구문이 화제-평언 구조와 긴밀히 관련된다는 세 번째 증거는 비tough 구문 속에 주어를 갖고 있는 경우와 관련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2) a. 존이 불어를 배우기가 쉬웠다.
 b. *존이 불어가 배우기가 쉬웠다.
 c. 존이 미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d. *존이 미인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12b)와 (12d)의 경우가 한국어의 tough 구문에 해당되는데, 비tough 구문과 비교해 볼 때, 모두 용인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문법성은 화제-평언의 화제화 구문으로서의 tough 구문의 특성과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이미 화제적 기능을 하는 ‘존’이라는 주어가 문두에 위치하고 있어 ‘만나다’의 목적어인 ‘미인’이 화제화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tough 구문의 주요한 동기인 화제-평언의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영어와 한국어 tough 구문의 사용 목적은 화제-평언의 구조화로서의 화제화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화제화를 통해 문장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확립할 수 있는 응집적 장치(cohesive device)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2. Tough 구문과 단언적/범주적 판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판단은 주어(subject)와 술어(predicate)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에 접어들어 철학자 Brentano (1924) 등에 의해 단언적 판단과 범주적 판단이라는 두 가지 판단의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범주적 판단은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틀과 부합하며, 논리적으로 복잡하다. 또한 이 판단은 두 가지 행위(act)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개체를 명명(naming)하는 행위와 그 개체에 관한 기술을 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단언적 판단이란 어떤 ‘심리적 주어’에 대한 서술(predication) 행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사건 전체에 기인한다고 보는 판단을 언급한다. 영어에서는 전형적으로 일기를 나타내는 경우에 단언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Lambrecht(1994, 2000)는 이러한 판단의 개념을 주어 문법 범주로 형식화시켜 문장 초점(sentence focus)과 술어 초점(predicate focus)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Lambrecht(2000)에 따르면, 이러한 범주적 판단과 단언적 판단을 구분하기 위해 언어마다 사용하는 책략이 각기 다른데, 영어에서는 그러한 대조를 운율적으로(prosodically) 나타내고, 이탈리아어와 러시아어에서는 어순

3) 익명의 심사자가 주장한대로, 한국어의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용인가능성 판단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달라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Song(1988)의 용인가능성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을 사용한다. 또한 프랑스어에서는 분열문과 같은 통사적 구조를 사용하고, 일본어에서는 ‘wa’ 혹은 ‘ga’와 같은 형태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비교 대상 두 언어에 관해 기술해 보면 영어에서는 운율적 장치로, 한국어는 일본어와 같이 형태적인 장치인 ‘는’ 혹은 ‘가’ 로 실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운율적 장치나 형태적 장치 외에도 문법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두 가지 종류의 판단의 차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문법적 장치 중의 하나가 tough 구문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즉 범주적 판단은 화제화와 관련되는 반면, 단언적 판단은 탈화제화(detopicalization)와 관련된다는 Melnik(2006)의 주장에 근거하여 tough 구문의 기능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단언적 판단의 예를 보기 위해 다음의 러시아어와 영어 예를 보자.

- (13) a. DOZHD' idet
rain goes
b. It's RAINING
Melnik(2006: 175)

두 문장 모두 이분법적이지 않은 명제, 다시 말하면 단언적 판단을 표현하고 있지만, (13a)의 러시아어 예는 운율구조상 문장초점의 예에 해당되고, (13b)의 영어 예는 운율구조상 술어초점의 경우에 해당된다(Melnik 참조). 한편 Sasse(1987)에 따르면 범어적으로 볼 때 단언적 판단을 개체 중심적 단언적 판단과 사건 중심적 단언적 판단으로 구분가능한데, 영어의 단언적 판단은 사건(event) 중심적이라고 주장한다.

Melnik(2006: 177)에 따르면, 단언적 판단에 대한 고전적인 검증 방법은 영어 질문 형태인 ‘What happened?’ 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단언적 판단과 범주적 판단 구분에 대한 준거의 하나로 삼고자 한다. 먼저 영어 tough 구문의 예를 검토해 보자.

- (14) a. It is difficult to learn English.
b. English is difficult to learn.

tough 구문인 (14b)는 구체적 개체를 나타내는 주어와 서술 구조를 갖고

있으며 화제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범주적 판단에 해당된다. 반면 예문 (14a)는 사건 중심적인 단언적 판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또한 ‘What happened?’ 에 대한 적절한 답은 (145b)보다는 (14a)가 적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영어 원어민 화자와의 인터뷰 결과임).

이제 한국어 tough 구문을 검토해 보자.

- (15) a. 불어가 무척 배우기가 어렵다.
b. *불어를 무척 배우기가 어렵다.
c. 불어를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

tough 구문에 해당되는 (15a)는 역시 전형적인 범주적 판단에 해당된다. 주어는 ‘불어’이며, 서술어는 ‘무척 배우기가 어렵다’ 라는 전체 구인데, 여기서 부사인 ‘무척’ 은 ‘배우기가 어렵다’ 라는 형용사구와 결합하고 있다. 반면 (15b)에서 ‘불어’ 가 목적격을 가질 때는 ‘무척’ 이 ‘배우기가 어렵다’ 라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대신 (15c)에서처럼 ‘무척’ 은 형용사 ‘어렵다’ 만을 수식하게 된다. 이러한 (15b)와 같은 구문은 개체를 주어로 갖고 그 주어에 대한 서술 관계인 술어를 갖는 범주적 판단과는 다르며, 단언적 판단과 유사하다. 또한 영어의 ‘What happened?’ 와 유사한 질문인 ‘무슨 일이 있었니?’ 와 같은 물음에 대해 ‘불어가 배우기가 어려웠어’ 라는 대답보다는 ‘불어를 배우기가 어려웠어’ 라는 대답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영어와 유사하게 한국어에서도 tough 구문이 범주적 판단과 연관되고, 비 tough 구문이 단언적 판단과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Tough 구문의 총칭성

본 장에서는 두 언어의 tough 구문이 총칭성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며, 이러한 tough 구문의 총칭성을 Cohen(2004)의 균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Chun(1995)에 따르면 아래의 영어 tough 구문 (16a)는 (16b)로 부연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총칭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GEN 연산자를 사용한 총칭적 분석을 하고 있다(아래 (18a)의 Aniya 1998의 용인가능성 판단에 의하면 for John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용인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참조).

- (16) a. Mary is tough for John to please.

- b. GENe[John tries to please Mary in e; Mary causes John to expend a large amount of effort in e].

(16a)에서는 John이 Mary를 즐겁게 만들 사건이 있다면, 항상 어렵다는 총칭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의미 표상에 GEN이라는 총칭적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칭적 분석의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몇 가지 증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어 tough 구문의 총칭성과 관련된 다음의 예를 보자.

- (17) a. Joe is impossible to talk to because ...
 i. ...he's as stubborn as a mule.
 ii. *... he's out of town.
 b. It's impossible to talk to Joe because ...
 i. ...he's as stubborn as a mule.
 ii. ... he's out of town.

(Chun 1995: 81)

이 예는 선행절과 후행 종속절의 의미적 부합 관계를 이용해서 tough 구문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tough 구문의 화제(주어)와 관련된 총칭적 해석이다. (17a)에서는 tough 구문이 사용되어 Joe의 일반적 성향을 나타내는 문이기 때문에 because 절 뒤에도 일반적 성향을 나타내는 절이 옴으로써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부합하고 있지만, (17b)는 비tough 구문으로서 그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으며 일시적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기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제약을 통해 영어 tough 구문의 총칭성의 특성을 알아 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8) a. ?/??John is easy for Mary to please.
 b. John is easy to please.
 c. *This house is impossible to die in.
 d. This house is impossible to live in.
 e. ??/*Babies are easy for Mr. Brown to please.
 f. Babies are easy for their own mothers to please.

(Aniya 1998: 16)

먼저 (18a)와 (18b)의 예를 검토해 볼 때, 비 tough 구문은 to 부정사절의 의미상의 주어로 비교적 자유롭게 for 구를 허용하나, tough 구문의 경우에는 for 구의 사용이 특정 사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총칭적 해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8c)와 (18d)를 비교해 볼 때, 내포절동사의 선택에도 제약이 가해져 ‘이 집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일반적 특성을 표현해 주는 (18d)가 적절하다. 반면 (18c)는 특정 사건과 연관되는 해석을 가져 용인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여러 집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 집이 그 곳에서 죽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때는 적절한 문장으로 해석 가능하다. (18e)와 (18f)의 경우를 볼 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있는 경우에도 의미상의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총칭적 해석을 보다 쉽게 가질 수 있게 된다. (18e)와 같이 단수일 경우는 특정 해석을 갖게 되어 적절하지 못한 문장으로 간주된다.

이제 한국어의 tough 구문과 총칭성간의 관련성에 관해 알아보자. 영어와 유사하게 비tough 구문이 특정 사건적 해석과 총칭적 해석 사이에 중의적인 반면 한국어의 tough 구문은 보다 일관되게 습관적, 총칭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위해 다음 문장의 의미 차이를 고려해 보자.

- (19) a. 볼펜을 잡기가 어렵다.
b. 볼펜이 잡기가 어렵다.

고광주(2002)에 따르면 (19a)와 같은 표현은 화자가 힘이 없어서 “볼펜을 잡는 일” 마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19b)와 같은 표현은 “볼펜 자체의 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잡기 어렵게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⁴⁾ 이러한 의미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어의 tough 구문은 ‘모든 가능한 경우에 그러한 특성이 적용 된다’라는 의미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것은 총칭성의 특성과 직결된다.

한국어의 tough 구문과 총칭성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다른 예를 살펴보자.

- (20) a.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다.

4) 익명의 심사자는 ‘어젯밤에는 이 피졸이 맞추기 힘들었다.’ 혹은 ‘오늘 아침에는 침실 창문이 열기 힘들었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tough 구문이 특정사건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나타내는 이러한 경우에도 tough 구문보다는 비tough 구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 b. *이 자격증을 취득이 어렵다.
- (21) a. 이 자격증이 취득하기가 어렵다.
- b. 이 자격증이 취득이 어렵다.

(고광주 2002: 12)

여기에서 동사 ‘취득하다’와 결합되었을 때, tough 구문과 비tough 구문이 모두 허용 가능하지만, 명사 ‘취득’과 결합되었을 때는 tough 구문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 ‘취득하다’와 결합될 때의 의미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혹은 사건)’이 어려운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명사 요소인 ‘취득이’와 결합했을 때는 ‘이 자격증’이라는 대상이 취득하기 어렵다는 보다 항구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총칭성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tough 구문의 총칭적 해석에 대한 균일성 요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Cohen(2004)에 따르면, 총칭문은 그 영역이 균일해야 함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균일성(homogeneity)이란 인지 심리학에 근거하는 개념적 표상(conceptual representation)과 관련하여 규정된다. tough 구문에 적용될 수 있는 균일성의 개념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사람의 집합이 갖게 되는 일반화된 경험으로서의 균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nglish is hard to learn’이란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표현하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합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문장은 ‘To x, English is hard to learn’으로 환언하여 이해 가능하다. 여기서 x란 주로 화자를 의미하게 되거나, 문맥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들의 집합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도 일반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집합 x의 크기는 모호성을 띠게 되며, 이 집합 x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된 어려움의 균일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어 tough 구문의 균일성에 관한 주장은 한국어의 tough 구문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영어가 배우기가 힘들다’라는 한국어 tough 구문 표현은 영어와 유사하게 화자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거나 문맥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들의 집합, 혹은 전체 사람들의 반복적인 경험의 구현 즉 ‘(x에게) 영어가 배우기가 힘들다’와 같은 의미 구조를 갖고 있다. 영어에서와 같이 집합 x의 크기는 모호한데, 이 집합 x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힘든 성질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집합 x의 크기에 대한 모호성과는 별개로 ‘generally/일반적으로’와 같은 양화 부사를 사용하여 일반화된 총칭성을 표

현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2) a. English is generally hard to learn.
- b. 영어가 일반적으로 배우기 힘들다.

(22a)의 영어 예와 (22b)의 한국어 예는 모두 양화 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 대중이 갖는 어려움의 수준을 표현하는 총칭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generally’를 포함하는 영어 총칭문은 균일성이라는 특성을 전달하는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Cohen 2004 참조). 즉 양화부사 ‘generally’를 포함한 총칭문의 경우 대부분은 영어가 배우기 힘들다고 느끼지만, 일부는 그 반대의 경우를 허용하게 되어, 그 자체로 균일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22b)의 한국어 예도 역시 양화 부사 ‘일반적으로’를 사용하여 일반 대중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균일성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총칭성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앞서 지적된 대로, 양화 부사를 사용하는 대신 주어의 격표지를 ‘는’으로 대체하면 보다 일반화된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도 영어와 유사한 tough 구문이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두 언어 tough 구문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에 관해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에 관한 설명은 크게 ‘상승’ 분석과 같은 이동 분석과 ‘어휘적 과정’으로 보는 비이동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비이동 분석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둘째, 두 언어 tough 구문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논의하였는데, 먼저 정보포장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보포장이론의 관점은 다시 화제화(화제/평언의 구분)의 관점과 단언적/범주적 판단 구분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화제화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언어 모두 tough 구문은 화제/평언 구조를 위한 응집적 화제화 장치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두 언어의 tough 구문은 단언적 판단 보다는 범주적 판단의 문형성을 위한 장치로 인식되었다.

셋째, 두 언어의 tough 구문은 모두 총칭성을 표현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었으나, 총칭성의 균일성 요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특이한 점이

목적되었다. 먼저 영어 tough 구문은 총칭성의 특성을 지닐 수 있으나, 모호한 x라는 개체(특정 개인, 사람의 집합, 혹은 모든 사람 등)의 경험을 반영하는 균일성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일반화된 균일성을 위해 ‘generally’ 와 같은 양화 부사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영어와 유사한 총칭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화된 균일성을 위해 한국어 tough 구문도 양화 부사 ‘일반적으로’ 등과 함께 사용 가능하나 역시 완전한 균일성을 표현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은 대체적으로 기능적 유사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언어들의 tough 구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일반화시켜 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광주. (2002). 국어의 ‘어렵다’ 류 구문 연구. *한국어학*, 15, 1-24.
- 김종명. (2004). 불어, 한국어, 영어 및 일어의 TOUGH 형용사구문 대조연구. *불어불문학*, 60, 489-519.
- 이정민. (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 397-424.
- 채희락. 1998. tough-구문과 비교구문의 영어 한국어 비교 분석. *어학연구*, 34(1), 33-71.
- Aniya, S. (1998). The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he *tough* construction. *Linguistic Analysis*, 28(1-2), 3-32.
- Brentano, F. (1924). *Psychologie com empirischen standpunkt*. Leipzig: F. Meiner.
- B ring, D. (1999). Topic. In Bosch, P. and R. Van der Sandt(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2-165.
- Chun, B. (1995). *A causative analysis of tough-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ohen, A. (2004). Generics and mental representa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529-556.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h, G-Y. (2000). Pragmatics of the English *tough*-construction. *Proceedings of NELS*, 30, 219-230.
- Hietaranta, P. (1984). Some functional aspects of the *tough* construction. *Studia Neohilologica*, 56, 21-25.
- Lambrecht, K. (2000). When subjects behave like objects: An analysis of the merging of S and O in sentence-focus constructions. *Studies in Language*, 24(3), 611-682.
- _____.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 & S.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Li, C.(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457-489.
- Melnik, N. (2006). A Constructional approach to verb-initial constructions in modern Hebrew. *Cognitive Linguistics*, 17(2), 153-198.
- Nanni, D. (1980). On the surface syntax of constructions with *easy*-type adjectives. *Language*, 56(3), 568-581.
- Postal, P. (1974).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_____. (1968). *Cross-over phenomena: A study in the grammar of coreference*. Yorktown Heights, N.Y.: IBM, Thomas Watson Research Center.
- Sasse, H. (1987). The thematic/categori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511-580.
- Song, S-C. (1988). *Explorations in Korean syntax and semantic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Takami, K. (1996).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tough*-construction. In Ikeya, A.(ed.), *Tough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Japanese*. Tokyo: Kuroshio Shuppan, 89-112.
- Van Oosten, J. (1984). *The nature of subjects, topics and agents: A cognitive explan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박기성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1) 510-2043
이메일: ksepark@pusan.ac.kr

Received: 10 Sep, 2006
Revised: 19 Dec, 2006
Re-revised: 12 Feb, 2007
Accepted: 20 Feb, 2007